

‘오빠’와 ‘누나’의 어원

조항범

충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교수

1

많은 친족 어휘 가운데 ‘오빠’와 ‘누나’는 어원 연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한 어휘에 속한다. ‘오빠’의 경우는 논의 자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 어원을 본격적으로 다룬 논의가 없고, ‘누나’의 경우는 논의 자체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렇듯 ‘오빠’와 ‘누나’가 친족 어휘의 어원 연구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은 어원 설명이 다른 친족 어휘에 비해 상대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외에 다른 이유는 없다.

그런데 이들 ‘오빠’와 ‘누나’의 어원 설명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들과 형태론적 계열 관계에 있는 다른 친족 어휘와 비교해 보면 단어 형성이나 형태 변화 과정을 그런대로 설명할 수 있고, 친족 어휘 전체에 적용되는 명명의 원리를 고려한다면 그 지시 의미나 의미 변화의 문제도 어렵지 않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위의 두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고 줄저(1996)에서 ‘오빠’와 ‘누나’의 어원론을 소략하게 다룬 바 있다. 그런데 ‘오빠’의 형태 변화 과정 설명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고, ‘누나’의 지시 의미를 밝혀줄 새로운

자료를 발견하게 되어 다시 두 단어의 어원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다.

2

‘오빠’와 관련된 후기중세국어 단어는 보이지 않는다. 근대국어 문헌인 <華音方言字義解>에 ‘올아바’로 처음 보인다.

(1) 東俗女弟呼男兄曰올아바此本外亞父三音之合而轉也

이 ‘올아바’는 ‘오라바’에 대한 분철 표기이다. 이 ‘오라바’가 후기중세국어 문헌에 나타나지는 않지만 아주 일찍부터 평칭의 호칭어로 쓰였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은 후기중세국어나 근대국어에서 평칭의 호칭어에 대응되는 지칭어 ‘오라비’가 쓰였기 때문이다. 평칭의 지칭어로 ‘오라비’가 쓰였다면 그에 대응되는 호칭어가 있었을 터인데, 그것을 ‘오라바’로 보는 것이다.

존칭형 ‘오라바님’을 통해서도 ‘오라바’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국어 친족 어휘의 존칭형은 평칭의 호칭어에 ‘-님’이 결합되는 구조라는 점에서 ‘오라바님’의 ‘오라바’가 의당 평칭의 호칭어가 되기 때문이다.

이 ‘오라바’는 ‘올-’과 ‘아바’로 분석된다. ‘올-’은 ‘올밤, 올벼’ 등에 보이는 ‘올-’과 기원이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바’에 선행하여 ‘이른’, ‘어린’, ‘미숙한’ 정도의 의미를 보인다. ‘아바’는 본래 ‘父’에 대한 평칭의 호칭어이다. 그런데 ‘오라바’에 보이는 ‘아바’는 ‘父’의 의미가 아니라 ‘男子’의 의미를 보인다. 그리하여 ‘오라바’는 ‘아버지보다 어리고 미숙한 남자’ 정도로 해석된다. ‘아바’에 ‘하-[大]’를 선행시킨 ‘한아바[祖父]’, 그리고 ‘아바’에 ‘앗-[少]’을 선행시킨 ‘아자바[伯叔父]’와 비교된다.

‘오라바’는 19세기 말 문헌에 ‘옵바’로 나온다. 그리고 ‘옵바’는 20세기 초반 문헌에 ‘옵바, 오빠, 오빠’ 등으로 표기되어 나오기도 한다.

- (2) ㄱ. 옴바 Brother-used in relation to a sister <한영사전 89>
 ㄴ. 두 으히는 회회락락하여 압셔거니 뒤셔거니 문 밧그로 나가더니
 또 만세 - 옴바 나두 호고 부르는 소리가 멀니 들니더라 <두견성
 (상) 36>
- (3) ㄱ. 업바야 이 말이 웬일이냐 금시초문일다 <명월정 46>
 ㄴ. 업바 업바 슬워 말고 스업흐기 바라노라 <명월정 126>
- (4) 오빠 : 幼女が男兄だ呼ぶ <조선어사전 618>(1920)
- (5) 오빠 : 계집애가 오라비를 부르는 말 <조선어사전 1026>(1938)

‘옴바’는 물론 ‘오라바’에서 변한 것이다. 그렇다고 ‘오라바’에서 직접 변한 것은 아니다. ‘오라바’에서 ‘옴바’가 나오려면 적어도 ‘*오바’ 단계가 전제되어야 한다. ‘*오바’에 ‘ㅂ’이 첨가되어야 ‘옴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父’의 ‘아바’에 ‘ㅂ’이 첨가되어 ‘압바’가 되고, ‘母’의 ‘어마’에 ‘ㅂ’이 첨가되어 ‘엄마’가 되는 양상과 일치한다.

이 ‘*오바’는 ‘오라바’에서 제2음절의 ‘라’가 탈락한 형태로 설명할 수 있다. 물론 ‘라’ 탈락의 근거란 쉽지 않다. 단지 2음절어인 ‘父’의 ‘아바’나 ‘母’의 ‘어마’에 이끌려 2음절어로 형태를 바꾼 것이 아닌가 추정할 뿐이다.

한편 ‘*오바’를 ‘올바’에서 변형된 어형으로 볼 수도 있다. ‘올바’가 문헌에는 나오지 않지만 경상 방언 ‘올바시’에서 확인된다. ‘올바시’는 ‘올바’와 ‘시(氏)’로 분석되는데, ‘올바’는 ‘오라바’의 제2음절 모음 ‘ㅏ’가 생략된 어형이다. 제2음절의 모음과 같이 제3음절의 모음이 ‘ㅏ’이기 때문에 동음 생략의 조건이 된다. 그런데 ‘ㅂ’ 앞에서 ‘ㄹ’이 탈락하기는 쉽지 않다는 점에서 ‘올바’에서 ‘*오바’가 나왔다는 주장은 ‘오라바’에서 ‘*오바’가 나왔다는 주장에 비해 설득력이 떨어진다. 지금으로서는 ‘오라바’가 ‘*오바’를 거쳐 ‘옴바’가 된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

20세기 이후 문헌에 보이는 ‘업바’는 ‘옴바’의 모음 교체형이며, ‘오빠’나 ‘오빠’는 ‘옴바’의 또 다른 표기에 불과하다. ‘옴바’와 ‘오빠’, ‘오빠’는 표기만 다

를 뿐 발음은 같은 것인데,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는 ‘한글맞춤법통일안’의 규정에 따라 ‘옴바’ 아닌 ‘오빠’로 적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빠’의 형태 변화 과정은 불완전한 대로 정리된 셈이다. 그런데 형태 변화 과정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그 지시 의미와 의미 변화이다. 지금까지 ‘오빠’의 지시 의미와 그 의미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은 편이다.

예문 (1)은 ‘올아바’에 ‘男兄’의 의미가 있음을 보인다. 이는 지금의 ‘오빠’와 같은 성격이다. 그런데 ‘오라바’에는 ‘男兄’의 의미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문 (3)ㄱ, ㄴ의 ‘업바’는 남매간 대화에서 누나가 손아래 남동생을 직접 부른 호칭이므로 ‘男弟’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이로 보면 ‘오라바’에는 ‘男兄’과 ‘男弟’의 의미가 모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男兄’과 ‘男弟’의 의미가 있었다면 이들을 아우르는 ‘男兄弟’의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어 친족 어휘는 해당 친족 부류 전체를 지시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라바’는 본래 남자 동기 전체인 ‘男兄弟’를 지시하며, 이 ‘男兄弟’에 포함되는 ‘男兄’과 ‘男弟’도 아울러 지시할 수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무엇보다도 ‘오라바’가 손아래 남자 동기에게도 적용되었던 점이 주목된다.

평칭의 지칭어 ‘오라비’, 존칭어인 ‘오라바님’도 평칭의 호칭어 ‘오라바’와 동일한 지시 의미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6) ㄱ. 오라비 殺戮을 맞나니라(兄弟遭殺戮) <두시언해 8:65>

ㄴ. 모든 오라비 상례 글 날글 저기어든(諸兄每讀經傳) <내훈2(하) :7>

(7) ㄱ. 하 민망호여 오라바님도 파췌 가시고 <순천김씨묘출토간찰 82>

ㄴ. 덩쳐가 나종의 세손기 …… 그 오라바님을 두려워 아모 일이라도
<한중록 210>

ㄷ. 화평옹주 성품이 인후공검호야 그 오라바님을 귀둥호야 연경당
으로 드오쇼셔 <한중록 114>

(6)ㄱ의 ‘오라비’는 ‘男兄弟’, (6)ㄴ의 ‘오라비’는 ‘男兄’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오라비’에 ‘男兄’과 그것을 포함하는 ‘男兄弟’의 의미가 있었다면 ‘男兄’과 대립되는 ‘男弟’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7)ㄴ은 鄭妻, 즉 思悼世子の 동생인 和緩翁主와 관련된 문장이고, (7)ㄷ은 思悼世子の 누나인 和平翁主와 관련된 문장이다. 따라서 (7)ㄴ에 쓰인 ‘오라바님’은 ‘男兄’의 의미를, (7)ㄷ에 쓰인 ‘오라바님’은 ‘男弟’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오라바님’에 ‘男兄’과 ‘男弟’라는 개별 의미가 결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들을 아우르는 ‘男兄弟’라는 의미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오빠’나 ‘오라버님’은 ‘男兄弟’나 ‘男弟’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男兄’의 의미로만 쓰인다. 말하자면 의미가 축소되어 있는 것이다. ‘男兄弟’라는 총칭적 의미가 ‘男兄’과 ‘男弟’라는 개별적 의미에 합류된 뒤 먼저 소실되고, ‘男弟’라는 개별적 의미는 아래 사람에게 대한 예법이 퇴색하여 호칭어가 쓰이지 않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다. ‘男弟’의 자리는 ‘이름’이 대신하고 있다. 예문 (3)의 개화기 소설의 예와 예문 (4), (5)의 20세기 초 사전의 예를 참고하면 ‘오빠’나 ‘오라버님’에서 ‘男弟’의 의미가 사라진 시기는 20세기 전반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현대국어의 ‘오라비’는 ‘男兄弟’, ‘男兄’, ‘男弟’의 세 가지 의미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물론 ‘男兄’의 의미로 쓰일 때는 卑稱이 되어 그 의미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3

‘누나’와 관련된 단어는 후기중세국어는 물론이고 근대국어의 얼마간도 문헌에 나타나지 않는다. 19세기 말의 <한영자전>(1897)에 ‘누나’로 처음 보인다.

(1) 누나 妹 A sister. (Low) <한영자전 378>

20세기 이후에는 사전에 등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많은 용례를 보인다.

(2) ㄱ. 누나 : 弟の姉に對する稱呼 <조선어사전 172>(1920)

ㄴ. 누나 : 사내 동생이 손위 누이에게 대하는 칭호 <조선어사전 301>
(1938)

(3) ㄱ. 그게 무슨 낙(樂)이에요? 그 낙(樂)을 누나야 알 수 있나. 한 모금 두 모금 쌀 적에 싸짓싸짓 타들어 가는 것도 재미(滋味) 있고 <지새는 안개 46>(현진건, 1923)

ㄴ. 한동안 답답한 침묵(沈默)이 잇슨 후(後) “누나!” 문쪽 창섭(昌燮)은 소리를 썰었다. <지새는 안개 47>(현진건, 1923)

ㄷ. 막내둥이 어린 누나! 아버이를 일즉이 여의고 제 손으로 길러내고 제 힘으로 공부를 시켜 논 귀여운 누나! 사십이 넘어 슬하에 일딴 혈육이 업고 사막가터 쓸쓸한 그의 가뎡에 오죽 한 송이 꽃인 어여쁜 누나! <荒原行>(현진건, 1929)

그런데 이 ‘누나’라는 단어는 후기중세국어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시기에는 평칭의 ‘누의’와 존칭의 ‘누의님’만이 존재하였다. 평칭의 자리에 하나의 단어만 배정되고 이것이 지칭과 호칭의 기능을 아울러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누의’의 지칭 기능은 문헌 자료에서 쉽게 확인된다. 호칭 기능은 문헌에서 확인이 되지 않지만, ‘누의님’에서 보듯 이것이 존칭의 단어를 만드는 데 이용된 것을 보면 호칭 기능이 있었다는 것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하였지만 국어 친족 어휘의 존칭형은 평칭의 호칭어에 존칭 접미사 ‘-님’이 결합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누의’의 일차적인 기능을 호칭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 한다. 평칭의 호칭 자리는 構造上 빈칸으로 남아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듯하다.

그 자리는 ‘누나’가 들어갈 자리이나 ‘누나’는 근대국어 이후에서나 보이기

시작한다. 이 ‘누나’의 단어 형성 과정은 설명이 쉽지 않다. 아울러 ‘누의’의 어원도 밝히기 어렵다. ‘누의’나 ‘누나’의 어원을 밝히기 어려운 것은 이들이 다른 여성 관련 친족 어휘와 형태상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이다. ‘祖母’의 ‘할미’와 ‘할마’, ‘姑母’의 ‘아즈미’와 ‘아즈마’ 등은 ‘母’의 ‘어미’와 ‘어마’를 포함하고 있는 형태 구조인데 반해 ‘누의’나 ‘누나’는 ‘母’의 친족 어휘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 말하자면 형태 계열상 아주 이질적인 것이다. 계열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여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런데 ‘누나’의 경우는 <조선어사전>(1938)에 보이는 ‘누니’라는 단어를 참고하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6) 누니 : ‘누나’와 같음 <조선어사전 301>(1938)

이 ‘누니’는 존칭형 ‘누님’에서 제2음절의 말음 ‘ㄹ’이 탈락한 어형으로 추정된다. ‘어마님’에서 ‘어마니’가 변형되어 나오고, ‘아바님’에서 ‘아바니’가 변형되어 나오듯이 ‘누님’에서도 ‘누니’가 변형되어 나올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누니’라는 단어가 실제로 사용된 예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사전에 표제어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를 크게 의심할 수는 없는 것이다.

‘누나’는 이 ‘누니’에 호격의 ‘야’가 결합된 ‘누니야’가 줄어든 어형이 아닌가 한다. 기존의 친족 어휘에 호격의 ‘야’가 결합되어 새로운 단어가 만들어지는 조어 과정은, 방언이지만 ‘누이’에 호격의 ‘야’가 결합된 ‘누이야’가 줄어든 ‘누야’라는 단어가 존재하므로 아주 어색한 것은 아니다. ‘누니’와 ‘누나’가 문헌에 등장하는 시기가 비슷하다는 점도 ‘누니’를 기반으로 ‘누나’가 나왔을 가능성을 높여 준다. ‘누나’가 ‘女兄弟’의 친족 어휘 체계에 합류함으로써 평칭의 구조적 빈칸이 채워지고, 따라서 안정된 어휘 체계를 이루게 된다.

이렇게 해서 ‘누나’의 단어 형성 과정은 그런대로 밝혀진 셈이다. 그런데 ‘누나’의 경우도 단어 형성 과정 못지 않게 주목되는 것이 그 지시 의미와 의미 변화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아쉽게도 전혀 논의된 적이 없다. 그리하

여 ‘누나’가 본래부터 ‘女兄’의 의미를 지녀온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예문 (2)의 <조선어사전>(1920)과 <조선어사전>(1938)에는 ‘女兄’의 의미만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예문 (3)을 보면 ‘누나’에 ‘女弟’의 의미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3)ㄱ, ㄴ은 사촌 오빠와 사촌 여동생 사이의 대화인데, 사촌 오빠가 그 여동생을 ‘누나’로 지칭하거나 호칭하고 있다. (3)ㄷ은 여동생에 대한 서술자의 기술인데, ‘여동생’을 ‘누나’로 표현하고 있다. ‘누나’가 손위의 여자 동기가 아니라 손아래의 여자 동기에 적용된 것이다. ‘오라바’가 손아래의 남자 동기에게 적용된 것과 양상이 같다. 20세기 전반기의 ‘누나’에 ‘女弟’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일이다.

‘누나’에 ‘女兄’과 ‘女弟’의 의미가 있었다면 그것을 아우르는 ‘女兄弟’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女兄’과 ‘女弟’는 총칭적 의미 ‘女兄弟’에서 분화된 의미이기 때문이다.

‘누나’보다 앞선 시기에 존재한 ‘누의’나 ‘누의님’도 ‘누나’와 같은 지시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7) ㄱ. 그 누의 병커든 반드기 친히 위흐야 불 일어(其姉病必爲然火)

<내훈 3:46>

ㄴ. 아스와 누의와는 각각 어드러 가니오(弟妹各何之) <두시언해 8:28>

(8) ㄱ. 네 아드러 각각 어마남내 피습고 누의남내 더브러 즉자히 나가니

<월인석보 2:6>

ㄴ. 만히 깃게이다 누의님하(多謝姐姐) <번역박통사 상:49>

예문 (7)ㄱ의 ‘누의’는 ‘女兄’, (7)ㄴ의 ‘누의’는 ‘女弟’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女兄弟’의 의미로 쓰인 예는 보이지 않지만 개별적 의미 ‘女兄’과 ‘女弟’가 확인되므로, 이들을 아우르는 ‘女兄弟’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문 (8)ㄱ의 ‘누의님’은 ‘女兄弟’, (8)ㄴ의 ‘누의님’은 ‘女兄’의 의미로 쓰인 것이다. ‘女弟’로 쓰인 예는 발견되지 않으나 ‘누의님’에 ‘女兄弟’와 ‘女兄’의 의미가 있는 것을 보면 ‘女兄’에 대응되는 ‘女弟’의 의미도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보면 ‘누의’와 ‘누의님’의 기본 의미는 ‘女兄弟’이고 여기에 포함되는 ‘女兄’과 ‘女弟’의 의미도 갖고 있었던 것으로 정리된다. 이는 ‘누나’의 지시 의미와 같은 것이다.

그런데 현대국어의 ‘누나’나 ‘누의님’에서 변한 ‘누님’은 ‘女兄弟’나 ‘女弟’의 의미로는 쓰이지 않고 ‘女兄’의 의미로만 쓰인다. 어느 시기인지는 모르지만 의미 축소가 일어난 것이다. 20세기 초 사전인 예문 (2)ㄱ, ㄴ을 참고하면 ‘누나’가 1920년대 초에 의미 축소를 경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그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다. ‘누나’나 ‘누님’이 지니는 총칭적 의미 ‘女兄弟’는 개별적 의미 ‘女兄’과 ‘女弟’에 분산, 흡수되어 먼저 사라지고 ‘女弟’의 의미는 아랫사람에 대한 예법이 퇴색하여 호칭어가 쓰이지 않게 되면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女弟’의 자리는 ‘이름’이 대신하고 있다. 한편 ‘누이’는 ‘女兄弟’나 ‘女兄’, ‘女弟’의 의미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4

지금까지 언급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오빠

- ① ‘오빠’는 ‘오라바’로 소급한다. ‘오라바’는 ‘올-’과 ‘아버[父]’로 분석되며, ‘아버지와 비교하여 미숙하고 어린 남자’ 정도로 해석된다.
- ② ‘오라바’에서 ‘읍바’까지로의 변천 과정은 명쾌하게 설명되지 않으나, ‘오라바’의 제2음절 ‘라’가 탈락하여 *‘오바’가 되고 *‘오바’에 ‘ㅂ’이 첨가되어 ‘읍바’가 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 ③ ‘오라바’는 본래 ‘男兄弟’ 전체를 지시한다. 그러면서 ‘男兄弟’에 포함되

는 ‘男兄’, ‘男弟’도 아울러 지시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의 ‘오빠’는 의미가 축소되어 ‘男兄’의 의미만 보인다.

- ④ 20세기 초에도 ‘男弟’의 의미를 보이고 있으므로 의미 축소는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 누나

- ① ‘누나’는 근대국어 이후에 조어된 단어로 추정된다. ‘누니’에 호격의 ‘아’가 결합된 ‘누니아’가 축약된 형태로 간주된다.
- ② ‘누나’의 본래 의미는 ‘女兄弟’이며, ‘女兄’과 ‘女弟’의 의미도 갖는다. 그런데 지금은 의미가 축소되어 ‘女兄’의 의미만 보인다.
- ③ ‘女弟’의 의미가 20세기 초반의 문헌에서 확인되므로 의미 축소는 20세기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

참고 문헌

김민수 편(1997), 우리말 語源辭典, 태학사.
徐廷範(2000), 國語語源辭典, 보고서.
안옥규(1996), 어원사전, 한국문화사.
趙恒範(1996), 國語 親族 語彙의 通時的 研究, 太學社.
崔昌烈(1996), 우리말 語源研究, 일지사.